

재해개요

2021년 7월 22일(목) 11:37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갯폼 작업발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(길이 약 2m / 무게 약 1.9kg) 한 가닥이 높이 약 62m 아래 지상으로 낙하하여, 하부에서 이동 중이던 작업자의 머리로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

【 유사 재해사례 】

- ◆ 2021.1.22.(금) 10: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(석공)가 외부 석재 마감공사를 위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자재 양중작업을 하던 중 석재가 낙하하며 이에 맞아 사망
- ◆ 2020. 5. 7.(목) 11:48경 세종시 연동면 소재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차도 벽체 조립용 철근다발을 양중하던 중 갑자기 슬링벨트가 이탈하면서 철근다발이 낙하, 하부에 있던 재해자(철근공)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

재해상황도



< 사고발생 장소 >



<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현>

재발방지대책

○ 관리감독 업무 수행 철저

-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갯폼 작업발판 유격구간 사이에 방치한 철근에 대한 낙하방지 조치 등 작업장 정리·정돈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

○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철저

- 동종 또는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갯폼 작업발판 간 유격 제한 및 갯폼 인상 작업 후 유격구간을 막는 등의 낙하물 방지조치 실시 철저.

○ 안전한 통로 확보 철저

- 철근 등의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구간의 주변은 근로자들이 낙하물에 대한 위험에 대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.